

2022년 3월 5일 “예수님의 비유(31) 양과 염소”(마 25:31~46)

양과 염소 비유는 재림 때에 성도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말씀합니다(31-33 절). 그것은 힘없고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1] 가난한 자

임금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34 절)은 창세 때부터 준비된 나라를 차지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곤경에 처한 사람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처지나 조건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바닥에 처하여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대상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부르십니다(마 5:3).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시 41:1-2). 성도는 이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기준임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2]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이 말씀(40;45 절)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 하나입니다(잠 14:31, 19:17 참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과 동일시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멸시/억압을 당하면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피조물들은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멸시와 억압, 미움과 착취가 일어나면,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동시에 관계를 깎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깨질 때 비인격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불의, 탐욕, 시기, 무정함, 무자비 등입니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죽음을 불러옵니다(롬 1:29-32 참고).

그런데 죄로 변질된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 관계회복이 아니라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써 힘센 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관계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이 없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사랑의 공급과 돌봄과 존중을 받아 소유나 직위에 불문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상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3] 영벌과 영생

오늘의 귀한 교훈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과 돌보지 않은 삶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비유 말씀은 우리를 선명하게 진리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연약하고 가난한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 한 분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정 있는 형제자매들을 받아주고, 돌보고, 찾아주고, 공급해주어, 영생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시 112:9 참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소중한 일들을 행한 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바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